



보도시점 2024.10.4.(금) 10:30 배포 2024.10.4.(금) 09:20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

- 중기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합동 이행현황 점검
-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10월중)
- 10.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지원, 10월 중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을 반영하여 '25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7.31), 저금리 대환대출(8.13),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등 금융지원 3중세트를 마련하였다. 금융지원 3중세트는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하였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

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9.12~30) 2,823명이 신청하여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 하였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 금융지원 3중세트 5,097억원(9.25) 지원 새출발기금 일평균 282명(9.12~30) 신청<2월 이후 평균 229>

** 전기료 1,341억원 지원(9.30), 매출채권팩토링: 650억원 지원(9.25), 폐업지원 약 133억원 확대(10월초)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1억4백만원 미만)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9.30~),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코로나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2월),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 발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중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7.23 출범)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 톱플랫폼을 7월 29일 구축하여 9월 27일까지 약 16.8만건의 상담을 완료하였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단계 : 7.29)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2단계 : 8.7)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3단계 : '25.1월~) 소상공인24(www.sbiz24.kr)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5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 1 영업일 평균 신청자 약 23% 증가(1차 확대 이후 대비)
 출범시) 148명('22.10월~'24.1월) → 1차확대) 229명('24.2월~9.11일) → 2차확대) 282명(9.12~9.30일)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1.3조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8.7일)위메프·티몬 → (9.9일)인터파크쇼핑·AK몰 추가 → (10.4일)알렛츠 피해기업 추가
 금리인하: 소진공·중진공 3.4~3.51%→2.5%, 신보·기은 4.4~5.5%→3.8~4.9% 서울3→2%

한도확대: 서울기업당 한도 0.5→1.5억원, 지원비중: 경기중소기업 지원비중 상향(200→900억원)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공정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위)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우 (swlee7@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배 (sungbae1107@korea.kr)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강창기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신채용 (shinchy@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